

번호 18-2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전체 쉼터 노숙자들의 건강실태 조사연구			
	영문	Health Status of Homeless People at Whole Shelters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상윤, 주영수 ¹⁾ , 임형준, 김형수 ²⁾ , 정일용 ³⁾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¹⁾ , 건국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²⁾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³⁾			
	영문	Sang-Yun Lee, Young-Su Ju ¹⁾ , Hyoung-Jun Im, Hyeong-Su Kim ²⁾ , Il-Yong Cheong 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¹⁾ Dep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²⁾ Dep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KonKuk University Hospital ³⁾ Korean Physicians for Humanism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98년 이후 늘어난 노숙자들의 재발을 돕고자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이는 주로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등이 운영하는 생활공동체 형태이며, 그 규모는 10명 ~ 300명 내외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노숙자 쉼터 거주자들의 건강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상대적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실태를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2000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전국의 노숙자 쉼터(희망의 집)를 대상으로 '거주자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3월 현재 총 162개 쉼터가 있으며, 총 5573명의 노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다음의 결과는 그 중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107개 쉼터(66.0%, 거주자수는 4374명으로 78.5%에 해당)로 부터 회송되어온 기록지를 분석하여 산출한 것이다. 본 조사의 경우는, 그 조사의 정확도와 완전성을 제고하고자 회송된 기록지를 연구원들이 다시 평가하여 전화를 통해 '쉼터 실무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p>					

3. 연구 결과

조사대상 거주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36.1%), 30대(26.9%), 50대(20.5%)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대~50대가 조사대상자의 8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기존 노숙자 연령분포와 관련된 자료들과 일치되는 소견을 보였다. 이들 중에서 여성은 160명(3.7%)이었고, 그 중 20세미만의 어린 연령층은 53명(여성전체의 33.1%)으로서 가족쉼터나 여성쉼터에 있는 아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질환별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알콜중독이 7.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 6.31%, 신체장해 5.92%, 고혈압 5.19%, 그리고 정신질환 3.75%의 순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자들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온 폐결핵은 2.95%, 간장질환은 간염과 간경화를 포함하여 2.90%, 당뇨병은 3.20%, 암은 10명(0.2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수는 모두 111명으로 전체의 2.54%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쉼터는 이와는 매우 달라서, 정신질환 유병율이 21.21%로서 가장 높았으며(정신분열증 7.58%, 우울증 13.64%), 신체장해(1.52%)와 정신지체(4.55%) 그리고 선천성 기형(1.52%)을 가진 사람이 총 7.58%이었고, 요통 유병율이 4.55%, 그리고 위장관 질환 유병율이 3.03%이었다.

4. 고찰

본 조사결과를 보면 알콜중독과 정신질환자와 같이 '특수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대상자수가 모두 478명(10.93%)으로 특성화된 '시설'이 몇 개쯤 있어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11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54%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쉼터'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의료적·경제적으로 '쉼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암환자들이 10명이나 '쉼터'에 기거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자가 35명이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본 조사가 '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니 만큼 다소간의 오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향이 실제의 유병 규모보다 대상자중에서 '질병 이환자'를 '놓쳤을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유병율이 저평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질병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기재한 결과들이 수집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설문문항 자체가 '확진'된 결과를 기재토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체 쉼터의 2/3, 거주자수로는 거의 80%정도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쉼터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